



[라이프]  
대웅제약  
36호 신약 탄생  
2년 연속 개발성공  
L2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 내 몸에 안전하게, 내 피부에 산뜻하게 여성건강까지 책임지는 '360도 케어'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라엘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세 명의 여성이 설립한 '우먼 웰니스' 브랜드 미국 아마존 유기농 생리대 부문서 1위 기록 '라엘 밸런스' 론칭...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여성용품부터 이너케어까지 여성 건강에 도움

'우먼 웰니스'를 지향하며 여성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유기농 여성용품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다.

2017년 한인 여성 세 명이 캘리포니아에서 설립한 브랜드 '라엘(Rael)'이다. 디즈니 영화사 배급팀 디렉터 출신 백양희, 베스트셀러 작가 아네스 안, 제품 디자이너 원빈나 등 세 명의 CEO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성용품을 만들기 위해 유기농 라엘을 설립했다.

라엘의 대표 제품은 전 세계에서 1초에 6개씩 판매(2021년 라엘 글로벌 연간리포트 기준)되는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다. 미국 아마존 유기농 생리대 카테고리에서 1위(2021년12월14 기준)를 기록했으며 더 나은 제품을 위해 소비자 후기를 바탕으로 6번의 리뉴얼을 거쳤다.

이미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라엘 생리대는 하루에 47만장씩 판매되고 있다. 올 1월 아마존 누적 후기만 21만1543개를 돌파했고, 아마존과 네이버 스토어에서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하며 소비자 만족도도 매우 높다.

민감한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안전성과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이다. 국제 유기농 인증인 'OCS(Organic Content Standard) 블렌디드' 인증을 받은 100% 유기농 순면 탐시트를 사용해 편안함과 산뜻함을 제공한다. 또, 환경과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 표백 공법인 완전 무염소 표백 공법(TCF)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스위스 인증기관인 SGS로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불검출 인증을 받았으며, 독일 피부 과학 연구소 더마테스트(Dermatest) 피부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획득했다. 알러지 유발물질 26종 테

스트도 완료해 화학성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생리혈을 빠르게 흡수 및 확산시키는 '순간 흡수층', 뛰어난 흡입력으로 확실하게 생리혈을 흡수하는 '과외 흡수층', 역샘방지를 위한 강력 흡수시트인 '천연 셀룰로오스 흡수층'으로 보송함과 산뜻함을 유지한다. 또,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통기성 백시트로 장시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좌우의 안심 샘 방지 가드는 양이 많은 날에도 샘 걱정 없이 활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준다.

라엘은 소비자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에 입점해 있다. 특히 2030 여성 소비자들 자주 방문하는 올리브영에 입점해 활발하게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623개 올리브영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라엘 생리대를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는데,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중형·대형)를 20%, '유기농 순면 커버 입는 오버나이트'(미디엄 4매)를 34%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오는 13일까지 올영픽 연계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해 5000원 이상 구매 시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 중형 체형팩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라엘은 올해 웰스케어 브랜드 '라엘 밸런스(Rael Balance)'를 론칭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다. '라엘 밸런스'는 여성들이 자주 겪는 질환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3종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라엘 밸런스 월경케어 보라지유 ▲라엘 밸런스 요로건강 크랜베리로 구성했다.

지금까지 피부에 닿는 제품을 통해 페미닌케어, 스킨케어로 여성들의 고민 해결에 힘써왔다면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이너케어까지 실천하며 건강한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한 360도 케어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2018년에는 클린&비건뷰티 브랜드 '리얼라엘(Real Rael)'을 론칭, 단순 뷰티 제품을 넘어 생리 기간 전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라엘 공동 창업자이자 현재 라엘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원빈나 대표이사는 "라엘 밸런스는 건강에 관심이 높고 소재와 품질에 민감한 한국 여성 소비자의 수요와 눈높이를 반영해 탄생한 브랜드"라며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부터 이너케어 제품까지 여성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라엘 밸런스 제품 라인업



▲라엘 생리대 및 이너케어 제품 /라엘코리아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10명 퇴장 심판·경고 누적 포르투갈...韓에 호재?  
▲류현진 '옛 스승' 매팅리와 토론토서 7년만에 재결합 /사진 뉴시스

▲前 EPL 선수 "가나전에서 벤투 태도 에도 문제 있었다"  
▲'튀니지전 패' 프랑스, FIFA에 골 취소 이의제기



▲잉글랜드 화이트, 개인사정으로 월드 컵 중도 하차  
▲韓 16강 진출하면 FIFA로부터 169억 원 배당금 받는다 /사진 뉴시스